광양 배알도 근린공원, 무장애관광지 열어간다…도비 1억 확보

‘관광약자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 공모 사업 선정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자 등 편의시설 확충

광양시가 전라남도가 공모한 ‘2020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 원을 확보하고 배알도 근린공원의 관광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광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이번 사업으로 관광약자 배려 화장실을 신축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일상의 장애가 관광 장애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열린 관광환경을 열어갈 방침이다.

또한, 휠체어, 카고자전거 등 장애인 이동수단을 확충하고 이동수단 보관시설을 신축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누구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 기반을 만들어간다.

시는 올 연말까지 추경예산으로 매칭 시비 2억3천만 원을 확보하고, 총 사업비 3억3천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5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배알도와 망덕포구를 잇는 해상보도교와 짚트랙이 완공되고, 배알도 섬 정원 조성사업까지 마무리되면 광양의 핵심 관광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화엽 관광과장은“관광약자나 동반자들에겐 자칫 여행이 설렘보다 불안과 두려움이 될 수 있는데 배알도 근린공원이 이번 공모에 선정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갖추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즐겁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대표관광지를 무장애 관광지로 전환시키고 점차 시(市)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 유일의 섬으로 남은 배알도는 망덕산을 향해 절을 하는 형상으로 정상의 해운정에 오르면 섬진강과 남해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지난해 개통한 해상보도교로 접근성을 높이며 꾸준히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된 섬진강 자전거길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으로 배알도유인인증센터가 있는 배알도 근린공원은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야영을 즐기려는 인파로 장

사진을 이룬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여수시, ‘가사분담 실천 릴레이’ SNS 캠페인

가사분담실천 메시지 · 일상생활 속 가사분담 인증샷 등

여수시는 여성 ·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수 실현을 위해 ‘가사분담 실천 릴레이’ SNS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사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SNS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22일 권오봉 여수시장이 첫 주자로 나섰으며, 다음 주자로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과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영 대표를 지목했다.

지목된 주자는 가사분담실천 메시지나 일상생활 속 가사분담 인증샷, 동영상 등을 자유롭게 개인 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 2명 이상을 지목하면 된다.

시는 지역 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도 캠페인을 적극 홍보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가정이 행복하고, 나아가 여수시민이 행복해지는 가사분담 실천 캠페인에 시민 여

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과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생분해 친환경 포장재’ 도입

순천로컬푸드, 친환경·청정 농산물 이미지 높여

순천로컬푸드는 직매장의 일반 비닐 포장재 일부를 자연에서 생분해 되는 친환경 포장재로 9월부터 교체하고, 이후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2021년부터 직매장 전체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재를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PLA 친환경 포장재는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필름으로 자연상태에서 미생물 등 분해 환경에 따라 100% 생분해된다.

또한 일반 포장재 보다 다소 금액은 높지만 강하고 질기며 투명도가 높고, 제조와 처리과정에서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높아 생태도시 순천의 청정 농산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로컬푸드 친환경 포장재는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사용과 환경부 후원기관인 (사)한국환경포장진흥원에서 친환경성, 안전·위생성 등에 심사 평가한 친환경 우수 포장 인증을 획득하여 더욱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순천로컬푸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직매장 장바구니 사용, 농산물 박스 및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카페 텀블러 사용 등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순천로컬푸드 사업은 9백여 농가와 1만 8천명의 소비자가 참여하고 있고, 5년만에 지속적인 성장으로 27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안전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3월에는 신대지역에 직매장 3호점을 오픈할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BS삼총사’ 본선진출

우리동네 캐림픽 대상 노린다

보성군 캐릭터인 ‘BS삼총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캐릭터를 뽑는 ‘우리동네 캐림픽’에 본선에 진출하며 대상 수상을 노린다.

‘BS삼총사’는 보성군 특산품 캐릭터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역 농가를 살리기 위해 탄생된 ‘착한 캐릭터’로 보성군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63개 지역 캐릭터가 출전한 이번 캐림픽에서 ‘BS삼총사’는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하며 슈퍼루키로 떠올랐다. 본선에 진출한 16개 지자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포진돼 있고, 광역지자체를 비롯한 시 단위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성군 BS삼총사는 특유의 귀여움과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해 탄생한 ‘착한 캐릭터’라는 매력을 무기로 본선 진출에 성공하며 저력을 뽐냈다.

우리동네 캐릭터 본선은 100%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며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우리동네 캐릭터 홈페이지(https://www.ourcharacter.org)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고흥군, 올해 식량작물 평가회

식량작물 분야 8개 사업 · 새청무 등 25개 품종 평가

고흥군은 지난 21일 선도농업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식량작물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흥군농업기술센터에 추진한 식량작물 분야 8개 사업 평가와 새청무 등 25개 품종 비교전시포에서 각 품종별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 육성된 ‘전남10호’ 대한 현장 평가를 가졌다.

또한, 3.3㎡당 37주로 드물게 심기한 실증포장를 방문하여 생육상황을 관찰하고 농업인의 의견 수렴 및 토의 시간을 가졌다.

평가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금년 벼농사는 잦은 강우로 강수량이 많고 일조가 부족하며 돌발 병해충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절한 관리 및 적기수확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긴 장마와 돌발 병해충으로 고생한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이상기후에 따른 재배방법 개선을 위해 내년에는 드물게 심고, 병해충 적기·적량·적용약제로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쌀의 품질관리를 위해 농업인이 수확한 벼에 대해 단백질, 수분, 아밀로스 등 무료 미질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